

피가나면 달려야지

박진홍

010. 2456. 9363

annphone@hanmail.net

기획의도

어른이란 수많은 경험들을 가진 존재를 말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경험들로 실제 경험하지 않은 것까지 어느정도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 경험한 사람 앞에서는 그 판단들이 소용이 없어지지 않을까.

그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어른이란 무엇일까를 표현하고 싶었다. '누가 어른이다'라는 결론을 내기 보다는 누가 어른인지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한 단초를 보여주는 것을 목표로 구성했다. 그러나 일단 이런 메시지와 상관 없이 영화 자체를 재밌게 만들고 싶었다.

로그라인

알바 첫 날, 지각해버린 직원은 부리나케 가게 안으로 달려들어온다.

등장인물

- 이모님 : 60대 여성 끈대, 자신이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여 가르치길 좋아하고, 말이 많음, 자존심이 썩 편.
- 알바생 : 20대 초 청년. 겉으로는 덩벙대고 일을 잘 못하는 것처럼 보임. 눈치를 많이 봄, 그러나 그 와중에 감정이 얼굴에 살짝씩 드러남.

#S1

제목 대신 챕터명이 흰 화면에 검은 글씨로 페이드인

Chapter 1 달려야지

#S2 치킨집 내부 주방 (N)

글씨 페이드 아웃되면서 첫 대사가 나온다.

흑백 화면. 음성 대신 자막이 나오고, 알바생이 거칠게 숨을 헐떡이는 소리와 주변음이 들린다.

알바생이 방금 도착한 듯 땀을 흘리며 숨을 몰아쉬고 있다. 눈치를 많이 보는 표정.

전체 검은 화면으로 순간 바뀌면서 커다랗게 자막이 나간다.

“아니!!!!”

원래 화면으로 돌아오고 인상을 잔뜩 찌푸린 이모의 얼굴이 클로즈업된다.

자막과 입 모양이 다르다.

이모(자막): 첫 날부터 그렇게 늦으면 어쩌자는거야?

알바생(자막): 죄송합니다. 버스를 놓쳐가지구요.

이모가 새로 온 알바생에게 이것저것 가르치고 있다. 한 쪽에 기대어 서서 뼈뺀 자세로 연설을 하듯 많은 말들을 쏟아낸다.

알바생의 흐르는 땀과 이모님의 쉬지않는 입이 차례로 클로즈업된다.

이모(자막): 아휴. 암튼 이걸 이거고, 저건 저거야. 이걸 저게 아니고 저건 이게 아니니까 명심하고.

그걸 알아야 어딜 가서든 칭찬 받는거야. 시간 지키는 것은 기본이고!

알바생(자막): 아하~ 넵 알겠습니다!!!! 이걸 이거군요!

이모가 약간은 미심쩍은 눈빛으로 알바생을 본다.

이모(자막): 그러니까, 알바를 처음하는 거라고? 잘 할 수 있겠나 모르겠네?

청년(자막): 아,,, 이래보여도 어릴 때부터 집안일을 많이 도와서요,

잘 할 수 있습니다!

청년은 약간 어리숙한 표정과 몸짓으로 어필한다. 주먹을 꽉쥐어 올리며 말을 하지만, 그 자세도 어정쩡하다.

이모(자막): 암 그래야지. 뭐 여자면 집에서 집안일 정도는 다 했을테니까~

그러, 한 번 해봐. 여기가 일이 그렇게 뽀뽀하진 않아~ 여기가 일 배우기 좋아. 이제 오픈했으니까.

(능청) 그리고, 일은 원래 장인한테 배워야지~

청년(자막): 넵넵!

이모(자막): 자. 이게 칼이야. 날과 등이 다르지. 잘 봐.

이모의 칼놀림이 예사롭지 않다. 순식간에 파를 다 썰어버린다.

청년이 약간은 기계적으로 놀라는 시늉을 한다.

이모(자막): 봤어?

이모가 다음으로 오이를 썬다. 말도 안되는 얇기로 오이가 썰려있다.

청년이 약간은 과장하며 더 놀라는 반응을 보여준다.

이모(자막): 봤어?

이모가 다음으로 당근을 썬다. 그리고 당근으로 연꽃을 만든다.

청년이 약간은 지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인다.

이모(자막): 봤어?

청년(자막): 와... 대단하시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시지를 가져온다.

이모(자막): 이게 말이야. 이 정도까지는 누구나 가능하긴 해.

근데 몇십 년을 하다 보면, 눈 감고도 할 수 있어.

청년은 이제 그만 보고싶다는 듯 표정을 짓는다.

그 표정을 눈치챈 이모가 약간은 찌푸리며 눈을 진짜로 감는다.

청년(자막): 아하...넵넵!

이모(자막): (심호흡하고 비장한 표정으로) 잘 봐.

이모가 눈을 감더니 소시지를 썰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부터 손을 썰었다.

암전과 동시에 썰리는 소리.

#S3

흑백 화면. 챗터명이 페이드인 됐다가 아웃이 된다.

Chapter 2 피가나면

칼라 화면, 음성이 나온다.

#S4 치킨집 내부 주방 (N)

손가락 부분부터 컬러로 나오고 주변으로 퍼진다.

이모: (아파서 소리를 지른다)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이모가 아파서 어쩔 줄 몰라한다. 청년은 그 주위에서 진정시키려고 하는데, 이모의 당황이 더 거세다.

그리고 곧 손가락을 휴지로 감싸 피를 막고 가게 밖으로 뛰쳐나간다.

그 뒤에 청년의 차분한 행동이 보인다. 냉동실에서 얼음을 꺼내고 비닐봉지에 잘린 손가락을 주워 물과 함께 같이 넣는다.

#S5 치킨집 바깥 거리 (N)

이모는 밖에서 우왕좌왕하면서 택시를 부르려고 쏘다닌다. 과호흡처럼 보일 정도로 험덱인다.

청년이 나와서 비닐봉지를 챙겨주며 말한다.

청년(음성+자막): 이모님, 진정하세요. 저쪽으로 쪽 뛰어가시면 병원 3분도 안 걸려요. 이거

가져가시구요.

그리고 병원을 가리키는 청년의 검지 손가락이 짧다.

그러자 이모님이 뛰기 시작하는데, 뛰다가보다는 아픈 무릎 때문에 빠른 걸음에 가깝다.

#S6 병원 앞 (N)

이모가 병원 앞에서 알바생이 준 봉지를 주섬주섬 꺼낸다.

그리고 떨어트리는데, 소시지가 굴러 떨어진다.

타이틀 + 크레딧

<피가나면 달려야지>